

#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 이민 가족 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비교연구\*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ir Perceptions of  
 Generational Gap between their grandparents and themselve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American and American  
 Adolescents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가족학과  
 강사 김혜경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Lecturer: Hyei Kyung, Kim

〈목 차〉

I. 서론	IV. 연구 결과 및 해석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V. 토의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Korean-American and America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OP Scale) and their perception on the generational difference(GN GAP) were compared to fin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race. Adolescents' perceived generational gap wa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their attitudinal differences. Adolescents, regardless of race, showed a somewhat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y perceived generational gap a little positively. Adolescents' age and sex were found not to be related with their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generational gap. For the Korean-Americans, birth-order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generational gap percepti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was the crucial factor influencing

\* 본 논문은 1988년 Kent State University 석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adolescents' perceptions on generational gap and their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directly. Grandparents' health and age affected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Additionally, adolescents's favorite grandparent was found to be maternal grandmother, and their relation style and conflict area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race.

## I. 서 론

가족은 과거로부터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적 기능을 하며, 이러한 가족의 전통과 가치는 세대간의 교류를 통하여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달된다. 비교적 동질적이고 변화의 속도가 점진적인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와 문화의 전수에 큰 무리가 없다(Saracho & Spodek, 1983; 이정연, 장진경, 정혜정, 1996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대사회는 절대적이고 규범적인 가치보다 상대적이고 도구적인 가치의 유용성을 더 강조하며, 따라서 규범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가족원의 행동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언어와 관습이 다른 타 문화권으로 이주한 이민가족의 경우, 가족원의 태도와 행동은 가족의 민족적 전통가치와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의 보편적 가치로부터 양면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특히 이러한 가족내적인 가치와 가족 외적인 가치(사회적 가치)에 대한 견해와 적용은 이민가족의 가족원 개인의 발달단계와 성격,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을 요구하는 개인의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르며, 이는 가족원의 갈등- 특히 세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한국가족의 전통가치로서 '경노'와 '효' 사상에 근거한 가족가치가 있다. 이는 부계직계가족의 수직적 원리를 기본으로하여 가족간의 유대를 강조하며, 부모 및 조상에 대한 자녀세대의 공경과 가족의 책임의식을 가치롭게 여기는 가족질서의 기본 원리일 뿐 아니라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교육의 궁극목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평적 민주원리가 팽배하고, 젊음과 경제적 유용성을 가치롭게 여기며, 노인의 역할과 지위가 하락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적 가족가치는 그 힘을 점차 잃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평적 원리에 입각한 개인주의적 가치가 우세한 다민족국가인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하 한국이민가족)은 전통적 가치관의 유지와 새로운 가치관과 관습을 적응해야 하는 갈등적 상황에 있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문화와 관습에 대한 적응수준이 세대와 성별, 개개인의 발달단계, 성격, 환경적 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나면서 가족간의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197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미국내 한국이민가족은 이민 1세인 장년기 부모세대와 그들의 부모인 노인세대는 미국 문화권에 살지만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동양적 가족주의적 가치관과 교육관을 갖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미국학교의 교육을 받은 이민 2세 자녀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 조부모간의 문화와 수용과 적응수준의 차이는 가족관계상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차경수, 1992)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력과 보호아래에서 독립하려는 독립심이 강해지고 권위와 전통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가하는 동시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 주변집단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역할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하는 욕구가 증대하는 시기이다(John W. Santrock, 1996).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비판의식이 발달하며, 가족보다 가족외적환경에 더 친화적이 되는 미국내 한국인 2세 청소년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전통 가족가치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 되리라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자녀와 부모 혹은 조부모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정체감과 뿌리에 대한 관심은 한국 청소년들로 하여금 한국적 미풍양속과 규범적 가치인 경노와 효

사상에 근거한 전통적 민족가치를 수용하여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꾀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세대차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발달적 특성과 사회적 보편가치에 의한 영향력 뿐 아니라 1차집단인 가족원의 가족가치의 영향에 의해서도 달라진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는 동일한 미국이라는 서구문화권에 살고 있는 한인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가 가족의 전통적 가치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미국청소년들과 비교연구하여 이민가족에서 가족의 사회화기능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 한국계 미국청소년들(이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조부모 세대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세대간의 틈'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효와 경노사상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하는 한국가족의 전통가치가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 있는 한국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2) 둘째 :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세대차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조부모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질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 (3) 마지막으로 청소년 손자녀들과 조부모세대와의 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한국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미국청소년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이민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손자녀들의 세대간의 관계를 어렵게하는 원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내 한국이민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가족원의 문화적 적응의 차이에 따르는 가족간의 갈등-부모자녀 갈등, 청소년문제, 미국가족내 한인노인문제-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 한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조부모와 청소년손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살피는 실증적 연구가 절대 부족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미국이라는 이질적 문화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관습에 적응해야하는 이민가정에서 가장 이질적

인 가치관을 갖고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청소년 자녀세대가 노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조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가정의 절대적이고 규범적인 가족가치인 경로효친사상에 근거한 세대간의 긍정적인 정서가 어떻게 자녀세대에게 인식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밝혀서 세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민사회에서 가족의 사회화기능이 얼마나 가족의 민족적 특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민가정의 한인 청소년자녀들이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으며,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 양면에서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부적응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차경수, 1992,) 이민가정의 가족원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전체의 균형잡힌 적응을 위한 다양한 가족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II.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

### 1.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은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이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핵가족의 가족유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원들은 노인세대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Townsend, 1976; Hagestad & Kranichfeld, 1982).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 및 가족내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였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노인에 대한 젊은이의 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Tuckman and Lorge, 1952; Kogan, N, 1961; Kogan and Shelton, 1962; Hickey, T & Kalish R. A., 1968; McTavish, D.G., 1971; Brubakers, T & Powers E, 1976; Burke, J. L., 1982).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노인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 및 인식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크게 아동 및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조명희, 1974; 임장순, 1979; 차용은, 1979; 김광숙, 1987; 임인혜, 1986; 곽필선, 1989; 이선자, 1989; 이은미, 1990)와 조부모와 손자녀의 세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동인, 1989; 박의순, 1990; 백문화, 1992) 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Tuckman & Lorge, 1954; Mctavish, 1971; Crandall, 1980; Ward, 1979; 차용은, 1980; 조명희, 1974) 젊은이들은 노인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노인을 매력없고, 무능력하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성적으로 무관심하고 어리석으며 소외되었고 생산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성별, 연령,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젊은세대가 경험하는 노인들과의 접촉의 양이나 질과 같은 관계적 변인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Ivester & King, 1977; Jewett, 1983).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도 있는데, 한국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조명희, 1974; 차용은, 1980), 미국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Downs & Waltz, 1981; Hoffman, 1980).

한편 연령은 인식과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많아질수록(아동보다 청소년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이선자(1989)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전 연령층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기가 가장 긍정적이고, 청소년기,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부정적으로 되었다. 이는 청소년은 새로운 세계와의 적응을 위한 정신적, 신체적 성숙과 함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려는 독립적인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들은 같은 연령층의 또래집단과의 친밀도와 동일시의 특성을 강하게 갖는 발달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노화와 관련된 인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노인과 관련된 인물 - 즉 조부모에 대한 태

도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Weinberger & Millhan, 1975; Tomas & Yamamoto, 1975; 이은혜와 Seefeldt, 1989; 이선자, 1989; 이은미, 1990).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이미지와 자신과 친밀한 조부모에 대한 태도를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결과들과 더불어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경험의 정도가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Cartestenses, Mason & Caldwell, 1982; Harshorne & Manaster, 1982; 조명희, 1974; 임장순, 1979; 차용은, 1980; 곽경숙, 1987; 이선자, 1989; 와타하키 도모코, 1993) 건강하고 친밀한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이 어린세대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Porter 와 O' Connor(1978)은 노인과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노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노인심리학을 등록한 학생들에게 노인을 짝지워 1학기동안 같이 강좌에 참석한 후 조사한 결과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상호간의 태도가 모두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증명하였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순위순 노인과의 접촉은 조부모와의 관계이므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조부모와의 긍정적인 접촉은 아동 및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에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은미(1990)는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임인혜(1986)의 경우,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더욱 노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는 한국가정의 경우, 노인들의 조부모역할이 모호하고 부모세대와 부모와의 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이 자녀세대에게 전달되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오히려 역효과를 주기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른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임인혜(1987)의 연구에서 외동인 경우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한국청소년과 미국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노화 및 노인의 이미지 혹은

노인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조부모와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노인과 긍정적인 관계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청소년의 경우, 노인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한 반면, 한국청소년의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나 접촉의 양은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어 서로 상반된다. 이는 한국가정의 경우 미국가정에 비해 조부모와의 동거율이 높아 접촉의 양은 많지만 고부간의 갈등 등의 부정적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접촉의 질적인 측면이 부정적일 경우가 많기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한국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는데 이것도 딸이 어머니와 조부모와의 갈등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거나, 노인들이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손자를 손녀보다 더 선호하기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한국청소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른 영향을 보려는 연구가 있었으나, 미국청소년의 경우 출생순위에 대한 영향은 무시된 변인이었다. 이는 한국가정의 경우 가부장적 직계가족의 특성이 가족원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만, 미국가정의 경우 그러한 영향력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세대간의 차이에 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인식의 차이(세대간의 틈 혹은 세대차).

모든 사람들은 낮은 연령층으로부터 높은 연령층으로 연속적, 단일적이며 보편적인 이동을한다. 이 과정 중에 있는 동일시대의 연령층은 같은 '세대'에 속한다고 하며, 이들은 동일한 역사적,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유사한 가치관과 이념, 생활양식을 공유하게 된다.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의 이념과 가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전 세대와는 다른 시각과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들의 새로운 시각은 전통을 고수하려는 구세대와

의 견해차이로 인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성규탁, 1995). Bengtson(1989)은 자유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이념을 숭상하는 새 사회 속에서 성장한 신세대와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환경 속에서 성장한 구세대간에는 필연적인 간격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세대간의 틈'이라 하였다. 그러나, 보편적인 '세대간의 틈', 즉 세대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간의 틈으로 인한 개인의 갈등 정도는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에 대해 갖고 있는 구체적이고 피부에 닿는 개인적인 세대간의 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확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젊은이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의 상호 교환적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개인의 경험을 고려해야만 한다. 청소년기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외부지향적인 강한 특성을 갖는 반면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개별화의 시기이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조부모와의 세대간 유대를 통해 문화적, 정신적인 연속감과 통합감을 전달받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Barranti, 1985, Mead, 1974, 백문화, 조병은, 1992에서 재인용), 세대간의 교류와 사회화과정을 통해 부모세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성규탁, 1995; 현은민, 1994). 따라서 청소년세대의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부모와의 바람직한 상호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과 세대간의 갈등의 정도, 그리고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 된다(Burke, 1982; 조경순과 이경이, 1982).

3.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가족가치와 문화의 영향

이상의 선행연구에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이 노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청소년 개인의 발달적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뿐 아니라 그 사회의 노인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와 태도 그리고 가족의 세대간

상호관계를 통한 친밀감과 가족가치의 전달정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노인 에 대한 태도와 같은 규범적 가치는 민족적 특성과 문화에 따라 차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실시된 실증적인 연구는 이은혜(1989)의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정계숙외(1985)의 '대학생의 노인지각에 대한 횡문화적 연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미국내 한국이민가족과 미국가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내의 다양한 인종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 민족의 하위문화는 가족생활유형 및 행동규범과 가치에서 지배적인 문화와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면 스페인계나 멕시코계, 혹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계 가족의 조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노인들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힘과 활력을 얻는다고 한다(Markides & Krause, 1986; R. C. Gibson, 1986; Mindle, 1983; 정옥분 외에서 재 인용). 따라서 경노와 효를 중요시하는 동양적 가치를 갖고 있는 미국내 한인가족의 자녀들은 미국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조부모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하게한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와 관습의 적용에 대한 요구도가 큰 이민가족의 청소년자녀세대는 또래와 환경의 영향력이 가족의 영향력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가족의 가치전달기능이 그 효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청소년과 차이가 없으리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내의 미국청소년들이나 한국내의 한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이민가족에서의 가족의 민족적 특성에 따른 가족원의 가치 전달과 같은 가족사회화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미국내 한인 이민가족의 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대해 비교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들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조부모와의 세대간의 틈에 대한 인식은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출생순위, 사회경제적인 지위)과 조부모와의 관계적 특성(세대간 틈에 대한 인식 정도, 접촉의 양과 질)은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4〉 한국청소년의 조부모와의 일상적 관계의 내용은 미국청소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 2. 조사도구의 작성

비교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1985년 1월 미국 Ohio 주 Cleveland 와 Maryland 의 Montgomery County 대 도시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106명의 한국 이민가족의 청소년들과 동일지역에 거하는 82 명의 미국청소년들을 설문지를 통한 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설문지는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위한 OP Scale과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세대간의 가치의 차이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정도(세대차; Generational Gap Score)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인 배경과 조부모의 건강상태와 연령, 조부모와 청소년과의 접촉의 양과 질에 관한 내용, 그리고 조부모와의 일상적인 관계내용을 설명하는 개방질문으로 구성되었다.

OP Scale은 Kogan's Old People(OP) Scale(1961)의 20문항중 10개의 부정적인 서술내용만을 선출하였으며, 신뢰도는 .786였다. 청소년의 조부모와의 세

대차이에 관한 인식의 정도는 4개의 문항으로, 청소년들에게 ① 조부모와의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관계상의 어려움의 정도, ② 조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의 정도, ③ 전반적인 조부모와의 만족한 관계의 정도 및 빈도, ④ 조부모의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로 인한 관계상의 어려움의 정도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각각의 이유를 묻는 개방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는 .675였다.

OP Score와 GN GAP 점수는 높을수록 청소년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자료는 질문지의 문항에 따라 범주화되어 점수화되고 SPSS PC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청소년(106명)은 남자 45명(42%)과 여자 61명(58%)이며 미국청소년(82명)은 남자 37명(45%)과 여자 45명(55%)였다. 연령은 세단계로 나누었는데 13-14세는 청소년 초기로, 15-16세는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 수	구 분	한국청소년 (N=106)		미국청소년 (N=82)	
		빈도	%	빈도	%
성 별	남 자	45	42	37	45
	여 자	61	58	45	55
연 령	13 -14세	43	41	39	43
	15 -16세	31	29	21	25
	17 -18세	32	30	22	27
출생순서	말이	45	42	36	44
	둘째이하	61	58	46	56
사회경제적 지위	중상	65	61	54	66
	중하	41	39	28	34

청소년 중기로, 그리고 17-18세는 청소년 후기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출생순서는 말이과 둘째이하로 구분하였는데, 한국청소년의 경우 45명(43%)가 말이이며 미국청소년의 경우 36명(44%)가 말이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경우 모두 60% 이상이 중상이상이었는데 이는 지역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OP Score = 30.4),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말하면 미국 내 한인 이민가족의 경우, 경노와 효사상에 근거한 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족가치는 적어도 청소년자녀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한국이민 가족의 청소년들의 80%가 이민 온지 10년 이상인 청소년들로서, 전통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을 기회가 적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Americanized'된 한국인 2세대이라는 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가족원보다는 또래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이민가정의 청소년자녀는 부모 혹은 조부모의 전통적인 가치보다 또래와 문화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미국계 한인 청소년들과 미국청소년들의 전체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노인들은 은퇴해서 자녀들의 부양받기를 좋아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이는 한국청소년이 미국청소년에 비하여 노인들을 노후의 삶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의존성이 강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가족내의 노인들이 미국노인에 비해 높은 의존성을 갖고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높은 의존성에 대한 인식은

〈표 2〉 OP Scale의 항목별 응답의 평균점수

문항의 내용	한국청소년	미국청소년	t
	M	M	
1. 노인은 젊은이와 비교해 어딘가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다	24.6	24.9	.
2. 노인들은 고집이 세고 변화를 싫어한다	30.5	30.9	.
3. 노인들은 은퇴해서 자녀들의 부양받기를 원한다	32.5	29.8	1.79**
4. 노인이 됨에 따라 사람은 지혜로워진다	27.3	27.9	.
5. 노인들은 다른사람을 힘들게 한다	30.9	29.9	.
6. 노인들은 지난이야기를 계속해 사람들을 지겹게 한다	28.8	29.9	.
7. 노인들은 다른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충고하기를 좋아한다	29.1	30.6	.
8. 노인들은 심술궂고, 짜증스럽고, 불유쾌하다	29.2	30.0	.
9. 노인들은 젊은 세대의 행동을 언제나 못마땅해 한다	31.9	32.2	.
10. 노인들은 사랑과 관심을 너무 요구한다	30.0	29.2	.
평 균	30.4	30.3	

\* p<0.05 \*\* p<0.01 \*\*\* p<0.001

한국청소년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주어 미국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리라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2〉 조부모와의 세대간의 틈에 대한 인식은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청소년들은 조부모와 세대간의 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GN GAP)을 하고 있었으며,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3). 이는 〈연구문제 1〉에서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한 세대간의 관계에 관련된 문항(노인들은 젊은 세대의 행동을 언제나 못마땅해 한다)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것과 관련하여 볼 때,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부정적이나 조부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Weinberger & Millhan, 1975; Tomas & Yamamoto, 1975; 이은혜와 Seefeldt, 1989; 이선자, 1989; 이은미, 1990).

〈표 3〉 미국청소년과 한국청소년의 세대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 (GN GAP)

	GN GAP	
	M (SD)	t
한국청소년	7.60 (2.02)	0.35
미국청소년	7.70 (2.24)	

그러나 세대간의 차이에 관한 인식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세대차에 대한 인식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 모두 조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청소년의 90%가 항상 혹은 자주 조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였으며(M=3.18), 그 이유에 대한 개방질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언어장벽이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미국



〈표 4〉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세대차이 인식에 관한 4개의 문항

GN GAP 문항	한국청소년(116명)	미국청소년(82명)
	평균	평균
1. 조부모와의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어려움을 겪습니까?	2.84	2.93
2. 얼마나 자주 조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3.18	1.60
3. 얼마나 자주 조부모와의 관계가 만족스럽다고 느낍니까?	2.42	2.35
4. 얼마나 자주 '어른말씀이 최고다'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조부모와의 관계상의 어려움을 느낍니까?	1.22	2.56

거의없다=1점, 가끔=2점, 자주=3점, 항상=4점

청소년의 경우 오직 17%만이 조부모와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M=1.60), 그 이유로 세대간의 은어나 청력장애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청소년의 22%가 조부모의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인해 관계가 어렵다(M=1.22)고 응답한 것은 미국청소년의 45%의 경우(M=2.56)와 비교할 때 특기할 만하다. 이는 이민가족의 한국노인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적인 충격등으로 젊은 세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노인의 권위가 낮아졌거나, 미국에 이민 온 한국가족의 노인들은 한국의 전통적 노인들에 비해 민주적이고 서구적이어서 비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한국청소년은 미국청소년에 비하여 조부모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더 적으므로 조부모의 권위적인 태도가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서, 노인을 존중하고 노인의 권위를 당연히 여기는 한국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출생순위, 사회경제적인 지위)과 조부모와의 관계적 특성(세대간 틈에 대한 인식 정도, 접촉의 양)은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청소년의 사회경제학적 지위는 한국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경우 모두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는데,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집단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출생순위는 한국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만이인 한국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었다.(표 5)

〈표 5〉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차이

		한국청소년		미국청소년	
		평균	t	평균	t
성별	남	30.41	0.02	30.51	0.06
	여	30.12		30.01	
연령	older	29.56	-0.87	28.98	0.10
	younger	30.89		28.11	
출생순위	만이	31.33	2.29*	31.98	0.17
	둘째이하	29.72		30.76	
SES	중상	28.92	-2.91**	28.76	-2.96**
	중하	32.90		33.01	

\* p<0.05 \*\* p<0.01 \*\*\* p<0.001

조부모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조부모-손자녀간의 관계만족도.

조부모의 건강과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조부모와의 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 모두 건강하고 젊은 조부모와 더 만족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조부모와의 접촉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표 6〉 조부모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조부모-손자녀간의 관계만족도

	한국청소년		미국청소년	
	평균	t	평균	t
조부모의 건강	3.22 2.78	1.28*	3.25 2.54	1.24*
조부모와의 접촉빈도	2.79 2.52	0.17	2.98 2.14	0.87
조부모의 연령	2.05 3.48	-2.12**	2.02 3.78	-2.77***

\* p<0.05, \*\* p<0.01, \*\*\* p<0.001

청소년 자녀의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그들이 느끼는 세대간의 차이의 정도와 관계만족도로 나타내었으며, 〈표 7〉은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본 연구의 청소년들은 세대차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p<0.01), 조부모와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

〈표 7〉 조부모와의 관계적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독립변인	한국청소년		미국청소년	
	b	$\beta$	b	$\beta$
조부모와의 세대차 인식	.26	.28**	.23	.29*
관계 만족도	.45	.31**	.55	.37**
	AdjustedR=.89 F =3.02** D-W =1.98		Adjusted R=.79 F =3.97** D -W = 1.87	

\* p<0.05, \*\* p<0.01 \*\*\* p<0.001

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이었다(p<0.01). 이는 한국청소년이나 미국청소년 모두 조부모와의 개인적인 질적인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있다는 것으로서 노인세대와의 긍정적인 접촉경험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인식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5. 〈연구문제 4〉 한국청소년의 조부모와의 일상적 관계의 내용은 미국청소년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청소년의 조부모와의 관계의 내용에 대한 질적분석을 위해 응답자들이 조부모와의 함께 하는 활동의 내용과 관계상의 특별한 어려움을 주는 내용들, 그리고 가장 가깝게 지내며 접촉이 많은 조부모,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상의 만족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한국청소년들의 경우, 조부모와의 관계가운데 의사소통시 언어상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습관과 같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많으며, 세대간의 가치차이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의 84명(80%)이 그들이 접촉하고 있는 조부모와의 관계에 매우, 혹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친밀한 조부모는 외할머니(47%), 친할머니(33%), 친할아버지(8%), 외할아버지(7%)의 순이었다. 이는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관계를 본 실증적인 연구들에서(김재은, 1974; 윤진 과 조스미, 1980; 박의순, 1990; Sarah H. M. & Jetse S., 1985;) 동일하게 손자녀들이 조모, 특히 외조모와의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며, 가장 좋아하는 조부모로는 외조모였던 결과와 일치한다. 두 개의 개방질문에 관한 응답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개방질문 1) : “ 당신이 조부모님과과의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어떤 것 들입니까?”

〈표 8〉에 의하면, 한국청소년이나 미국청소년 모두 의복이나 청소,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습관등으로

〈표 8〉 당신이 조부모님과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어떤것입니까?

	응답내용	빈도(명)
한국청소년 (N=64)	일상생활의 습관과 태도(의복문제, 음악, 청소...)	21
	성취에의 압력(공부압력)	15
	요즘세대(10대)에 대한 몰이해	5
	친구와 인종간 결혼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간섭	5
	다른 문화적인 관습의 차이	5
	구식적인 사고	4
	무응답	5
미국청소년 (N=58)	일상생활의 습관과 태도(의복, 음악, 청소, ..)	16
	요즘세대(10대)에 대한 몰이해	9
	사회적인 문제 및 시사적인 문제의 견해차이	9
	성취에의 압력(물질주의적인 가치)	6
	보수주의적인 태도	5
	무응답	13

인한 갈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구식이며 보수적인 경향으로 인한 갈등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들의 조부모세대와 갈등을 겪는 가치차이는 궁극적인 가치이기보다는 수단적인 가치의 영역이 많다. 이는 양세대간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지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 의견, 이념 등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된다는 선행연구(Campbell, 1969; 성규탁, 1995에서 재인용; 현은민, 1994)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은 미국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세대로부터의

‘성취지향적인 압력’을 더 많이 받으며, 특별히 친구문제나 결혼 등에 관하여 조부모세대와 이해와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이민가족이 자녀세대의 교육과 사회적인 성공을 절대가치로 보고 청소년 자녀들에게 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에서 살지만, 미국인과의 결혼에는 아직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방질문 2) : “당신은 조부모와 함께 지낼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조부모와 손자녀간의 상호관계의 유형을 알아보고

〈표 9〉 당신은 조부모와 함께 지낼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응답내용	빈도(명)
한국청소년 (N=64)	일상적인 대화	18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29
	간단한 교훈과 학습	3
	함께 기도하기	4
	별로 특별한 활동 없다	10
미국청소년 (N=58)	일상적인 대화	11
	사회적 혹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대화	12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4
	간단한 교훈과 학습	9
	공휴일, 명절의 활동	13
	여행, 방문, 쇼핑	9

자하는 위의 질문에 대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일상적인 대화와 서로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교류중심임을 보여주었다. 소수이지만 조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청소년도 양쪽 다 있었다. 그러나 미국청소년들은 과반수이상 국경일이나 명절때의 특별활동이나 여행, 방문, 쇼팽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반하여, 한국청소년들은 그런 활동이 전혀 없고, 70% 이상 조부모는 정서적인 관심을 주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표 9)

##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경노의식 및 효개념을 중요한 동양의 가족관계상의 전통적 가치로 볼 때, 환경과 또래의 외부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 서양 문화권에 살면서, 부모 및 조부모로부터의 전통적인 가치의 가정내적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내 한국 이민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간의 관계가 미국청소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한편 그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세대간의 인식은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또한 자신들의 조부모와의 실제적인 관계양상을 살펴봄으로 조부모와의 상호관계적 질이 궁극적으로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청소년들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조부모와의 세대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한인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미국청소년의 그것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한인청소년의 미국에서의 평균 거주연도가 10.6년(평

균연령 = 14.8세)으로 이미 어려서부터 "Americanized"된 청소년의 수가 다수이기 때문이며; 둘째, 한국 이민가족의 경우 미국문화에 대한 동경이 강하고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다음세대로 전달하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모세대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들의 새로운 문화와 의식에 대한 사회화를 장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내적인 영향보다 또래와 사회환경 등의 가정외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이한 것은 미국청소년들에 비해 한국청소년들은 노인들을 노후에 자녀들에게 의존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청소년에게 있어서 노인은 부양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노부모부양의 의무를 수행하게 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는 부정적이나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Weinberger & Millhan(1975), Tomas & Yamamoto (1975), 그리고 이은해(1989)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 2) 만이인 한국청소년은 비만이청소년에 비해 노인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출생순서가 한국가정에서의 세대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청소년들이 노인을 부양부담의 대상으로 강하게 인식한 결과와 더불어 부양의 의무가 만이에게 있는 가부장적 직계가족의 전통적 특징이 미국내의 한국가정의 만이들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세대간의 차이에 관한 긍정적인식을 한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따라서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아지고 이는 청소년 손자녀에게 긍정적인 세대간의 상호교류의 기회를 촉진하

기 때문이며, 이런 가정일수록 가족의 전통적 규범과 가치의 전수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조부모와 만족하고 즐거운 관계를 갖고 있는 청소년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나, 세대간의 갈등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조부모와의 질적인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조부모의 건강과 연령이었다. 따라서 건강하고 젊은 조부모와의 긍정적이고 빈번한 접촉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갈등을 적게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강하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노인과의 개인적이고 의미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대간의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 5)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조부모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관계가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나, 갈등의 내용은 일상적인 생활습관이나 생활태도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같은 수단적인 가치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한국청소년들은 특히 공부하라는 압력, 친구선택이나 결혼 배우자에 대한 전통적 관습 등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민 1세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녀들의 성공에 있으나, 성공에 대한 개념이 부모중심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면이라고 생각된다. 미국내 한인청소년의 문제와 대책에 관한 소수의 연구와 케이스 스터디들은 미국이민가족의 부모와 자녀사이에 언어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오는 정체성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성적을 둘러싼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부모자녀사이의 윤리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커다란 갈등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차경수, 1992). 미국내 한인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는(Lee, 1989; Golden, 1987; 차경수, 1992에서 재인용) 이민은 후에도 여전히 한국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은 두 개의 문화사이에서 주변성과 정체감의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한인청소년의 경우 성취지향적인 부모세대의 압력은 하위권성

적에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과 더욱 유리되어 탈선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하고, 폭넓은 가정에서 인간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 6) 청소년들의 조부모와의 활동의 내용을 비교해 볼 때, 한국청소년은 일상적인 대화나 정서적인 배려와 관심 등의 정적인 관계인 반면, 미국청소년들은 공휴일이나 명절 때의 활동이나, 여행, 방문, 쇼핑 등의 동적인 활동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도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대리부모나 원거리형 혹은 상징형의 조부모역할 외에 뚜렷한 조부모역할에 대한 모델이 없음을 증거하며, 앞으로 노인들에게 바람직한 조부모역할의 모델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 7) 한국청소년의 90%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조부모와의 관계의 장애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은 흥미있다. 이는 한국청소년들이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적거나 없어서 만족도가 높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볼 때, 조부모-손자녀간의 더 깊은 이해와 유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8) 청소년들은 외조모와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는 서동인(1991) 등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내 한인가족의 청소년자녀들은 매우 '미국화'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나, 최소한으로 세대간의 관계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가치의 영향도 받고 있음을 밝히고있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민가족의 부모들은 부모-자녀관계, 조부모-손자녀관계 등의 세대간의 가치를 절충하는 작업으로서 세대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미국의 주류문화의 적절한 학습을 통해 사회에서 성공하며, 자신의 정체성

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으로서 여가 활동과 상담활동등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드러났는데,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변인으로 노인자신의 경제적인 자립도나 성격특성(예; 노인의 자존감, 통제성), 혹은 청소년의 조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족내적인 변인(예;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의 관계의 질)들의 영향력도 함께 볼 수 있는 연구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90%가 조부모와의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힘들다고 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미국내 한인사회에서는 두 세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학공부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노인세대의 영어교육이 한계가 있다면, 이민자녀세대에게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광필선(1989).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 2) 김광숙(1987). 청소년의 노인관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3)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4) 백문화, 조병희(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동거와 비동거 가족의 비교-", *대한가정관리학회지*, 30권 2호 219-235.
- 5) 서정기(1992). 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6) 성규탁(1995).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권 1호 1-14.
- 7) 윤진, 조석미(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회지*, 제1집, 75-85.
- 8) 이은미(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 9) 이은혜 와 Seedeldt C. R.(1989). "한국아동과 미국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생활과학논집*, 3권, 173-179
- 10)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대 박사논문.
- 11) 임장순(1979).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
- 12) 이정연, 장진경, 정혜정(1996). 가족생활교육의 기초. 제7장. 서울, 하우.
- 13) 임인혜(1986). 한국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 14) 정계숙, 박성미, 김정신(1995). 대학생의 노인지각에 대한 횡문화적 연구, *사대논문집*, 30, 부산대학, 143 -161.
- 15) 조명희(1974).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태도분석.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16) 차경수(1992). "미국내 한인 청소년문제와 대책-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1(겨울), 36-53.
- 17)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9호 12-23.
- 18) 현은민(1994).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전달 및 가치변화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24-35.
- 19) 와타히찌 도모코(綿引伴子)(1994). "여자고등학생의 고령자에 대한 관심의 현상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일본가정학회지*, 45(4), 331-341
- 20) Bengston, V. L.(1979). Research perspectives on intergenerational interaction. In R.H. David(Ed.), *In aging parents*(Chap. 4.)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ress.
- 21) Brubakers, T. and Powers E.(1976). "The stereotype of 'old'; A review and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1-447.
- 22) Burke, J. L.(1982). "Young children'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older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4 (3), 205-221.

- 23) Carstensen, L. Mason, S.E. & Caldwell, E. C. (1982).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 an intergenerational techniques for a change", *Educational Gerontology*, 8, 292-301.
- 24) Downs, A. C. & Walz, P. J.(1981). "Sex differences in preschooler's perceptions of young, middle-aged, elderly adults", *Journal of Psychology*, 109, 119-122.
- 25) Glass, J. C. & trent, Jr. C.(1980). "Changing ninth-grader's attitudes toward old persons', *Research on Aging*, 2(4), 499-513.
- 26) Hagestard, G. O. & Kranichfeld, M.(1982). "Issues in the study of intergenerational contitnuity. Paper presented at th NCFR Theory and Workshop.
- 27) Hartshorne, T. S., & Manaster, J. M.(1982).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contact, importance, role con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5(3), 233-245.
- 28) Hoffman E.(1980). "Young adults'relations with their grandparents: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3), 2199-309.
- 29) Ivester, C., & King, K.(1977).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17(1), 85-89.
- 30) Jewett, M.(1983).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effects of membership in an extended family", Unpublished Master Thesis, Kent State University, Kent, Ohio.
- 31) Kogan, N.(1961).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62, 44-54.
- 32) McTavish, D. G.(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4), 90-101.
- 33) Olejnik, A. B.,& Larue, A. A.(1981). "Changes in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aged: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contacts", *Educational Gerontology*, 6, 339-351.
- 34) Papalia, D. E. 정옥분 역. *인간발달 II*.
- 35) Tuckman, J., Lorge, I.(1952). "Attitudes toward the old workers", *Jpurnal of Applied Psychology*, 36, 149-153.
- 36) Sara H. M. & Jetse S.(1985).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Grandparents: An Empeirical Contribution to Conceptual Clar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0(5) 621-626.
- 37) Townsend, P.(1976). Intergenerationa and family ", In R. C. Athchley and M. M. Selzer(Eds.), *Social Aspects of Aging(pp.254-276)*. Durham, J. C.: Duke University Press.
- Weinberger, L. E., & Millham, J.(1975). "A multi-dimensional, multiple method analysis of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0 (3), 343-348.